

너부터

90

2022 상반기

4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4 젠더는 왜 정치적 전략이 되었는가
- 10 2022년 봄, 국회 앞 출장가: 함께 싸운 우리가 이긴다. 평등으로 가져
- 16 성폭력 사건 피고인의 방어권 악용과 가려진 피해자의 권리
- 20 더불어 민주적인, 정당 내 성폭력 공식 조치를 촉구한다
- 25 <말하는상영회> 온전한 자신을 마주하고 용기를 나누는 시간

28 똘다!상담소

30 열림터 다이어리

- 31 내가 만든 악몽

36 생존자의 목소리

- 36 다시 길 위에 서다
- 43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 당신에게

46 성문화읽기

- 46 적 합 소 :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를 소개합니다
- 52 꺼진 '낙태죄' 도 다시 보자,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 56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반쪽짜리 판결

60 시골시골 상담소

- 60 상담소의 새 사람, 세 얼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67 내가 자원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유
- 72 비영리도 '스마트' 할 수 있습니다

76 아낌없이 주는 나무

80 훈훈한 기부

젠더는 왜 정치적 전략이 되었는가

란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9

한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모두에게 민주적일까요?

이대남, 개발, 젠더 갈라치기...

'성평등하자!'는 외침이 정치에 이용되는 지금,

한국 정치 속 젠더의 위치를 짚어봅니다.

2021년은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한국에서는 1983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1990년 정무장관실과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정부조직 상 독립부처인 여성부로 신설되었다.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여성부'의 설치 이전의 장관실 산하 조직 또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존재했을 때의 조직적 한계와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 강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이후 여성부는 기능 변경에 따라 여러 차례 부처명이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독립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각 정부 부처 내에 하부조직인 양성평등담당관이 존재하는 형태로 기구화되었다.

2001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승격 개편된 여성가족부는 당시 1실3국11과(담당관) 102명의 정원으로 편성된 '초미니급' 부처¹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를 이관받고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가족 정책까지 전담하게 되었으나 인력이나 예산이 더 확대되지는 않았다.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본인의 소임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했고 취임했다. 국제조약에 따른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의 설치, 전 부처의 성평등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갖는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왜 이렇게도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되었을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는 요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는 요구는 한국사회에서 지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6년 여성가족부가 송년 모임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성인남성들에게 회식비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실시한 데 과도한 비난이 쏟아진 이후, 인터넷 등에서 여성가족부가 특정 상표의 과자와 자동차회사의 로고가 성기 모양을 닮아 불매운동을 펼친다는 등의 소문²이 퍼지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글들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당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사이트는 여성가족부가 남성 역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에 의해 개설되었고, 폐지에 동의하는 다수의 네티즌은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중복돼 제대로 된 역할이 없고 사회적 역차별을 조장하며 예산만 낭비한다'고 응수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남녀평등이 아니라 여성대우이며 이기주의 집단일 뿐'

1) 연합뉴스 기사, 2005.06.14,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배경

2) 김기태 기자, 한겨레 기사, 2006.12.28, '여성부 폐지' 논란, '조리종과 소나타' 불매운동 헛소문까지

이라는 당시의 주장³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구하는 2022년 지금의 내용과 너무나 닮았다.

2006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2007년 제17대 대선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에서 여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여러 반발에 부딪혀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철회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선거 국면 때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젠더 이슈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

페미니스트 주권의 선언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이대남’의 표심이 대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후보는 ‘민주당은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해서 패배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 ‘여성가족부 폐지’ 단 일곱 글자의 글이 당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극적으로 돌려놨다. 정책적 공약이라고 볼 수 없는 단 한 문장이 대선판의 핵심적 구호로, 정책적 공약으로 등장한 것이다. 여성들이 열어온 정치적 공간을, 성평등 정책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해온 역사를 불공정과 역차별 담론으로 뒤엎는 정치적 퇴행, 반페미니즘 공약의 난무, 여성에 대한 혐오와 배제, 더 나아가 ‘중오 선동’에 가까운 대선 정국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삭제되고 무시되었다. 선거 시기에만 주요한 정치적 주제로 등장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정치적

3) 정희정 기자, 문화일보, 2006. 12. 29, ‘여성부 폐지’ 서명운동 확산

존재로서의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은 가시화된 집단적인 ‘여성’들을 드러내고, 실천적 행동으로 대선정국을 돌파하자는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저들이 원하는 ‘무기력’이 아니라, 지지 않고, 지지치 않고, 더욱 거세게 대응하자는 제안에 전국의 단위들이 모여들었다.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에 함께 참여했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22년 2월 12일 서울 보신각에서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 차별과 혐오, 중오 선동의 정치를 부수자>의 집중 집회에 함께했다. 전국적인 흐름을 조직하기 위해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온라인 10만 서명운동>도 함께했다. 서울에서, 경남에서, 전남에서, 대구에서, 경북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은 모이고 행동했다.

<시국토론회-세대와 젠더분열을 넘는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포럼: 미투에서 대선까지>는 한국여성학회와 동아대학교 젠더어팩트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다. 시국토론회에서는 페미니즘 대중화를 통해 만들어진 확장적 민주주의의 퇴행에 맞서는 다른 말하기의 필요성과 디스토피아적 상




황의 막막함을 함께 바꾸자는 제안, 젠더 갈등 프레임의 담론정치의 분석까지 폭넓은 분석이 이어졌다. 2부의 필리버스터에는 수많은 발언자가 참여하여 거대 양당의 ‘협박 정치’프레임에 눌리지 않고, 여성의 존재를 지우려는 정치에 맞서는 더 많은 ‘페미니스트 주권자’의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약 한 달여 간 지속된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은 그 어느 선거보다 심각한 절망감 속에 진행된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투표라는 행위에 멈추지 않는 정치적 실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적 운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당선되었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차별과 혐오, 분열과 갈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자신들의 뜻을 국민의 힘이 아닌 다른 정당에 대한 투표로, 미처 투표라는 행위에 담지 않은 정치적 실천을 선거 이후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후원으로 드러냈다.

여성가족부 존폐의 논의를 넘어

지난 1월 미국방송 <CNN>은 ‘한국의 놀라운 안티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방송에서 한국의 상황을 ‘온라인에서 부채질 되고 우파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인 구애를 받으며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오히려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주요한 중점 사업으로는 ‘여성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폭력방지·피해자 보호’였다. 지난 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⁴를 한 결과다.

4) 김원정, 이성준(2022),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여성가족부 주요사업 ‘필요하다’생각, 여성가족패널브리프 No.7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온라인 기반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 마치 거대 담론처럼 기획되고, 이에 편승한 정치권이 이를 확산하며, 정치적으로 기운 특정 정당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주요한 정책인 듯 다뤄졌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현실의 요구를 단순히 젠더 갈등 프레임이라고,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우파 정치권의 전략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위의 설문조사에서 여성가족부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4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2.25점으로 낮았다. 그 이유로 ‘성평등한 사회 구조변화보다 여성 지원에 치중해서(49.5%)’,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39.5%)’,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서(36.8%)’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 못해서(여성 43.7%, 남성 36.0%)’와 ‘공직 사회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적극 개입하지 못해서(여성 45.8%, 남성 29.4%)’는 남성보다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2018년 미투 이후 드러난 성차별, 성희롱 사건에 있어 주무부처로서 대응이 부족했다는 뼈아픈 평가다.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로서, 정부부처 전체의 성평등정책을 조정하는 역할로서 여성가족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금,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의 확대, 강화는 단순히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라는 요구에 담길 수 없다. 지난 20여 년간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이 쌓아 올린 역사가 퇴보되지 않도록, 저들이 원하는 ‘무기력’이 아니라, 지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대응해야 할 이유다. 

2022년 봄, 국회 앞 출장기

함께 싸운 우리가 이긴다. 평등으로 가자!

동은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9

*올 봄, 국회 앞은 차별금지법을 원하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로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보듬은,
그 현장의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15년간 유예된 차별금지/평등법을 시민의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 2022년, 더욱 세차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연초에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이 출범하여 서울과 수도권 구석구석 시민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차별금지법을 언급도 하지 않기에 '대선보다 차별금지법!'을 외치게 됐던 것이죠. 3월부터는 국회 앞과 온라인에서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 행동 '평등한끼'가 시작되었습니다. 밥 먹는 일을 미룰 수 없듯, 평등도 미룰 수 없기에 '평등이 밥'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한 끼 단식에 동참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는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국회 앞 농성과 두 인권활동



무대 뒤쪽으로 경사가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 연단! 모두를 위한 말하기 장이 되어 주었다.

가의 단식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로서 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운영팀으로 함께하며 매주 1회 국회 앞 집회와 농성을 지원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평등의 봄을 기억하며 3월부터 시작된 국회 앞 출장기를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평등 연습!

2022년 봄, 국회 앞은 매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였습니다. '평등한끼'부터 열린 말하기 장은 제각기 다른 곳에서, 각자의 상황과 정체성을 들고 모인 사람들의 풍성한 발언으로 채워졌습니다. 다녀간 모든 이들이

아름답다고 칭찬했던 무지개 연단에 올라 생생하게 자신이 겪은 차별과 그 차별의 이상함을 증언했습니다. 어떤 청년 여성분은 아픈 가족의 주돌봄자인 ‘영 케어러(young carer)’로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고용 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입사를 하더라도 잦은 조퇴로 능률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까봐 자신의 상황을 밝히기를 꺼린다는 것이었어요. 이야기 속에는 청년으로서 ‘생산성’을 발휘하기를 요구받지만, 정작 주돌봄자로서 가족을 책임지는 것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방송작가님은 “프로그램 제작에서 PD는 ‘아빠’고 작가는 ‘엄마’다. 작가는 집안 살림하듯 프로그램 전반을 잘 챙겨야 한다”라는 말을 막내작가 때부터 수없이 들었다며,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성별분업 현실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성별정정을 위한 과정 중 의료적 조치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 성별 정정에 소요되는 긴 시간 동안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불과하다는 점도 또 다른 말하기 속에서 짚어졌습니다. 구조적 성 차별은 없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라고 외면하는 정치에 맞서 각자의 삶 속 차별의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자리를 지키며 새삼스레 깨달았던 것은, 차별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듣지 않으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차별은 일상에 너무나 달라 붙어 있어서 차별이라고 이름 붙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끼를 덜어내는 비일상적인 자리를 만들어 내야만 비로소 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차별의 구조가 뿌리 깊은 만큼 차별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따로 떼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 앞에 모인 이들은 매일매일 평등연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지금껏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에 자리를 마련하여 사회



국회 앞 ‘평등토티즌’ 지킴이로 함께한 상담소 활동가들

가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면, 차별의 현실을 듣고 서로가 차별하지 않고 돌볼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평등한 관계 맺기 방법을 더 많은 동료시민들이 알아갈 수 있게 하는 법이라면,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내일이 구체화되는 장소가 국회 앞에 열려 있었습니다.


‘민생법안’ 차별금지법 외면하는 ‘나중에’ 정치

4월에 들어서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앞 농성과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15년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역사 중에 특히 작년에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 심사를 회기말로 미뤄버렸기에 계속해서 국회 내 평등을 앞당기는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또 렷하게 드러났듯이 차별과 혐오 선동이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에 최소한의 공동체적 안전망으로써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4월부터의 투쟁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마음을 모아왔고 합의를 만 들어온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적 장에 올려놓을 다시없을 기회라는 절박한 의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평등텐트촌’을 오가는 동안 모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벽차기도 했지만, 때때로 두렵기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해 단식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지만 단식자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농성장에 찾아온 사람들도 단식자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동시에 이런 상황을 만든 정치에 분노를 표현했어요. 단식투쟁은 눈치만 보는 국회,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시급히 입법절차를 밟아가도록 촉구하는 실질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돌림노래처럼 불러냈지만 여러 번의 여론조사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단식농성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5월 초 한국 궐립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성별, 지역, 지지정당, 직업, 정치적 성향 등을 불문하고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이제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에서 세부 쟁점을 살펴보는 등 ‘국회의 몫’을 다할 때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제정국면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평등법안이 무려 3개이고, 대선패배 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개혁입법 과제로 차별금

지/평등법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는 실질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서지 못하고 지방선거 ‘나중’으로 자꾸만 미뤄졌습니다. 올해 봄 차별금지법제정을 원하는 시민으로서 저는, 유력정당들이 시민의 삶을 다루고자 하는 의지도, 역량도 확인할 길 없이 요란한 선거 유세 차량과 공보물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5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농성과 단식투쟁을 마무리하며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법 제정을 요구한 시간만큼 시민들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지고 평등과 존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말하기도 많아졌습니다. 단식자들이 몸으로 투쟁하며 다른 국면을 열어냈고, 그렇게 만들어진 대안적 공간에서 평등에 관한 다양한 의제와 구체적인 시민의 얼굴들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두고, 또 제 할 일을 다 하지 않는 국회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고심하며 앞으로의 운동 방식을 모색해나가겠지요.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소속단위로서 앞으로의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모두의 존엄은 한순간도 놓칠 수 없기에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향한 상상은 계속 확장되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 길을 회원 여러분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폭력 사건 피고인의 방어권 악용과 가려진 피해자의 권리

도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

’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새로운 위협에 내모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로서,

피해자의 지위가 재정립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봅니다.

지난 2월 8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의 공동주최로 시리즈 집담회 2차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악용, 이대로 괜찮은가?>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리즈 집담회는 최근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백래시를 다루기 위해 기획된 집담회로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진행되었던 1차 집담회에서는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고 나아가 정신감정 등 추가적인 감정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고, 이번 2차 집담회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2차 가해들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발제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랑 활동가가 ‘성폭력 수사 재판 자료의 피고인 활용 전략,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입수한 피해자의 사적 자료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유출한 실제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다음 발제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조현주 변호사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제한, 현실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관마다 상이한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절차와 근거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진영 교수의 ‘피고인의 성폭력 수사 재판 자료 활용의 법적 한계’를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피고인 방어권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악용과 남용에 대해 신중한 관점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운을 떼면서도, 현행 법령이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 조치의 사유가 지나치게 좁은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피고인 측의 열람·복사 신청에 대해 법원은 서류 단위가 아닌 정보 단위로 판단할 것, 피해자 측에 제한 여부에 관한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이 ‘법적 권리로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범죄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피해자가 정작 형사사법절차에서 주체로 대우받지 못하는 점을 꼬집으며, 피해자를 형사사법절차 과정 및 결과의 이해관계자로서 마땅히 권리를 향유할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

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국제사회의 동향을 공유하고, “보호와 시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조금은 익숙해진 개념일 듯합니다. 간첩 조작 사건 등 수많은 사법 피해자가 있었던 한국의 형사재판제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여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의 피고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유독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해결 과정에서, 성차별적 구조와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결합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스스로의 방어가 아닌 피해자를 향한 무기로 휘둘러지는 상황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언론 등에 공개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거의 의료기록들을 가지고 현재의 피해를 부정하기도 하며, 끊임없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신뢰도를 떨어트리려는 가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명백히 ‘방어’의 영역을 넘어선 피해자를 향한 공격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받게 됩니다. 토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미비한 상태인데, 이번 집담회를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한편 성폭력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신체적 외상,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문서 등)가 존재하기 어려운 범죄 자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되고, 때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판결의 유/무죄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는 자신을 향한 가해자

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도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주장들을 하는지 확인할 방법과 충분한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 절차는 단순히 공정한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뿐 아니라 (물론 이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법적 해결 과정이 2차 피해를 생산해내는 절차가 아니라 주체적인 회복을 위한 과정이 되기 위해, 피해자는 누구보다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재판절차에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만 합니다.

패널분들이 자료집에 담아주신 알차고 훌륭한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운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읽고 계신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집담회 자료집 보러가기 ▶



지방자치단체장 위력성폭력 이후 두 번의 지방선거를 지나며

더불어 민주적인, 정당 내 성폭력 공식 조치를 촉구한다

오매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9

위력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정치인의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① 일단 대충 유감인데, 선거가 가장 중요하니 알바 아니다

② 피해자를 지지하고, 일터의 성차별 구조를 바꾸기 위해 힘쓴다

정답을 회피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성폭력이나에 따라 피해자가 싸워야 할 문제는 다르게 전개된다. 가족 내 성폭력은 경제적 의존/부양 관계에 놓인 다른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가로막고, 가족의 '정상성'을 전제하는 사회 제반 관습과 제도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장벽을 만든다. 자격심사나 학업평가를 담당하는 교육훈련시설 교수자가 가해한 성폭력은 진로, 직업비전, 장래생존권 자체의 문제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위력성폭력은 정치권이라는 영역의 문법, 문화, 작동방식을 경유하며 어떤 생존과업을 피해자에게 전가했을까.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은 발설하고 신고하는 것부터 '위험한' 일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의 도전이 100이라면, 그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피해자

의 도전은 1000으로 느껴진다. 예상되는 과정, 격려받는 시도, 보상과 성취가 따르는 고생과 달리 성폭력 피해자의 여정은 다시 침묵으로, 억압으로, 없던 일로 돌아가라는 공격이 대규모로 몰려온다. 광범위한 시민 중에는 피해자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지방자치단체나 정치 영역 내에서 종사하던 노동자였음을 생각하면, 소속 공간에서는 무차별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두려움은 유사할 수 있지만, 정치영역 내 성폭력 피해자는 더욱 '제도적 장치 없음' 상황에 부딪힌다. 피해자가 말하기 전에는 정치인의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시피 하다. 성범죄 검증이 공천과정에서 도입되고 있다고 정당은 홍보하지만, 정치인이 검증, 평가를 거쳐 국민의 대표자가 되고, 못하면 재평가받고 탈락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있다고 신뢰하는 이는 드물다. '다음 선거에서 평가 받는다'며 통 쳐져 있는 방식, 이기냐 지나라는 결과론만 남아있는 방식은, 평가나 견제가 작동한다기보다는 반대로 거대양당 간 이분법적 적대(적공생)관계에서 살아남는 것을 지상과제로 상정하게 한다. 무조건적 지지와 '지켜주기'를 해야 정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내로남불'이나 '나중에' 정치를 쌓아왔다. 내부를 향한 문제 제기, 비판과 견제는 '내부총질'로 불리고 음모론으로 몰린다.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 경력이 오래된 정치인과 다르게 비서진이나 보좌진은 하루 만에 발탁되고 해고되는 신분으로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해도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견제할 장치가 없이 정치논리에 내맡겨져 있는 셈이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 역시 다른 피해자들처럼 가해자를 고소, 신고하고 법적 처분이나 조직 내 해결 과정을 밟고자 했다. 그

런데 가해자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광역단체장까지 지낸 정치세력의 주요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전국적 실시간 ‘과녁’이 되어 버렸다.

피해자와 지원단체, 여성운동가들은 ‘정당’ 차원에서의 공식 조치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 안희정 사건에서는 2018년 3월 6일부터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 음해성 댓글을 제보 받아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제보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신고센터에도 접수하였지만, 해당자가 위촉직이나 당원은 아니라며 반려되기도 했다. 2018년 미투운동이 발생한 직후에 있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안희정계 후보들은 “죄송하다” “성찰하고 반성하겠다”로 허리를 굽혔지만, 선출된 이후에는 안희정을 위해 유리한 증언을 했던 이들을 고용하고 영전하고 고속 승진시켰다.¹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은, 사건을 공론화한 직후부터 부산지역의 거대양당 정치구조에 입각한 비난이 피해자와 지원단체에게 쏟아져 정치적 2차 가해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했다.²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서는 전 시장 정무직과 정치고관여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투어 피해자 비방, 피해자 기록 방출 및 짜깁기 유포 등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직접 고소하고 수사를 촉구해야 했다. 정당이 제대로 된 조치를 방기하는 사이, 정치권발 성폭력 2차 피해 확산의 심각성을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당규를 긴급히 개정하여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세웠다.³ 오거돈 시장 사건 피해자는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센터에 2차 피해에 대해서 직접 제소했는데,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마저 부산시당 윤리심

1) 안희정 사건 가해자 편을 든 이들의 정치권 내 영전, 승진 관련하여 [성명] 안희정 측근에 의한 2차 피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들을 끌어안는 곳인가, 2020년 7월 9일 참조
2)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 공론화 시기에 발표된 [성명] 성폭력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2차 가해 및 비방에 부처, 2020년 4월 29일 참조
3)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2020년 10월 30일 참조


판원은 징계를 기각했는데 피해자 측은 결과문을 받아볼 수도, 이의제기하는 절차도 시도할 수 없었다.⁴

2022년 미투운동 만 4년이 지나는 시기,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TV토론에서 당과 캠프 내 2차 피해 책임자들에 대해서 조치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재명 후보는 “누군지 알려달라” “누군지 모르니 못하는 것”이라고 두 차례나 답했다. 이에 안희정 사건 피해자 측은 2022년 3월 4일 대선캠프에 요청 사항 세 개를 전달했다. 같은 날 오거돈 사건 피해자 측도 세 가지 요청을 명확히 전달했다. 그러나 답은 없었다. 대통령선거 직후 추적단 불꽃 활동가였던 20대 여성 박지현 씨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해당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성범죄 무관용 원칙, 온정주의적 가해자 비호 척결, 지방선거에서 성폭력 2차 피해까지 심의 기준 적용 등이 선포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산성폭력상담소는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관련 부적격 후보자 공천 배제 및 대책 마련과 이행 요청>을 발송·요구했지만, 2차 피해를 유발한 양승조, 최민희, 변성완은 각각 충남, 남양주, 부산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었다.⁵ 지방선거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지만, 공식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부총질’이라는 문제 제기자에 대한 공격이 무참히 계속되고 있다.

정당은 무엇일까. 표준국어대사전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

4)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 관련 2차 피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제소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 두 성명문 참조. [성폭력사안에 해결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연대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2차 가해자를 공식 징계하고 예방하라, 2021년 12월 16일, [성폭력사안에 해결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입장문]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조속히 공식조치하고 재발 방지하라!, 2021년 10월 29일
5) 성명문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 후보 배제하라! 개혁적이고 성평등한 6.1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준비하라, 2022년 4월 25일

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 정당법 2 조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의한다. 정당은 공공기관의 수많은 기관장을 임명하는 권력이 모여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추천하고 피선된 이들의 소속단체이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배출한다. 그럼에도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성폭력, 성희롱 대응 책무에서 예외가 되고 있다는 점은 해태를 넘은 해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 성희롱 대응 책무와 성차별 방지 및 성평등 구조 구축의 책임을 견인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엄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를 확산,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화가 나며, 우려스럽다.

정당 내 성폭력 공식 조치를 촉구한다. '더불어 민주적인' 것이 '정치적 이상', '국민의 이익',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 맞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과 가해자에 대한 옹호 행위를 중지하고 피해자의 편에서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문화 변화를 견인하는 것은 사회조직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다. 

〈말하는상영회〉

온전한 자신을 마주하고 용기를 내는 시간

산 | 회원홍보팀 활동가

，

4월 20일 저녁, 상담소 회원들은 작은 극장에 둘러앉아 조금씩 멀어지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애프터미투」를 보고, 이야기꾼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의 대면 모임이라 더욱 반가웠던 현장, 살짝 보고 가세요!

2022년의 태양을 반갑게 마주하기도 전에, 혐오로 얼룩진 우리네 사회를 보며 무력감을 느낀 분들이 적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잦아들 기미 없는 백래시와 전략적으로 혐오를 이용하는 정치권까지, 여러 상황을 목도하며 저 역시 막막함을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회원놀이터는 참여자 여러분이 서로 힘을 주고받는 자리가 되기를 염원하다시피 하며 기획했습니다. 마침 영화감독 강유가람 님이 공동체 상영을 제안해주셔서, 한국 미투운동의 3년 후를 포착한 다큐멘터리 영화 「애프터미투」를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불신의 벽 앞에서 곳곳이 진실을 외친 2018년의 미투운동. 4년 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성의 존재를 지우고 혐오를 조장하는 성차별 구조는 여전하지만, 우리의 말하기를 멈추지 말자고 결의를

다질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랜만에 오프라인 대면 행사로 기획하였고요. <말하는상영회>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말하는상영회>가 열린 성미산마을극장은 마치 새로운 시공간에 따로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참여자분들을 비롯해 스텝으로 함께 한 상담소의 활동가까지, 소극장 안의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영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깊은 몰입은 영화가 끝나고 진행된 GV(관객과의 대화)에서도 이어졌어요. 그만큼 '애프터미투'가 우리 안에 수많은 질문과 담론을 남긴 것이었겠지요.

GV에는 영화를 연출한 영화감독 강유가람 님, 소람 님, 그리고 영화에 출연한 마임배우 이산 님이 이야기꾼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람 님의 '애프터미투' 제작 계기를 시작으로, 영화에 대한 감상, 촬영 전후로 달라진 점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소람 님은 가수 보아의 '넘버원'을 듣다가 번뜩 '여성의 욕망과 불쾌함'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유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번 회원놀이터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나눠주신 소감 하나하나가 인상 깊었습니다. '애프터미투'가 희망을 전면에 그려내는 영화가 아닌데도, 모든 소감의 끝에 희망이 엿보이는 듯했거든요. 소극장 2층 조정실에서 무대를 내려다보며 마음에 따뜻함이 가득 차는 기분이었어요. 그 조그만 말들을 공유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된 자리였다.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

“(‘여고괴담’에서) 검은색 세단을 몰고 온 졸업생분이 나올 때, 무슨 씩 김긋 하는 느낌으로... (중략) 내가 못 봤지만,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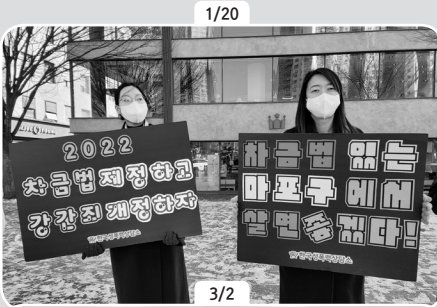
“미투 이후의 우리 사회를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그래서 좀 막막하고 부정적인 감정도 들지만, 많은 게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걸 마무리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 '애프터미투'는 네 명의 여성 감독이 각각 연출한 단편을 엮어낸 작품입니다. 스콜 미투의 도화선이 되었던 용화여고의 이야기를 담은 '여고괴담(박소현)', 생존자가 주체적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과정을 담은 '100.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이숨이)', 문화예술계 미투 당사자와 연대자의 현재를 담은 '이후의 시간(강유가람)', 여성의 성적 욕망과 이를 금기시하는 사회를 연결해 풀어낸 '그레이섹스(소람)' 총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투를 더욱 폭넓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정식 개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관람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말하는상영회> 참여자의 생생한 후기와 GV 속기록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후기와 속기록 보러가기 ▶ 

- 1월** 1/11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출발 기자회견 “차별을 깨고 내 삶에 자유를! 차별에 맞서 평등한 존엄을!”
1/20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마포구 유세
1/27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한, 대안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제31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 2월** 2/7-2/18 로스쿨 공익법무실습
2/8 시리즈 집담회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킵 2차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약용, 이대로 괜찮은가?”
2/12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
2/16 제153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우리는 듣고 있는가?”
2/18 공익법무실습 활동 발표회
2/19 시국토론회 “세대와 젠더 분열을 넘는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포럼: 미투에서 대선까지”
2/26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대국회 집중유세 “가자, 평등의 나라로!”
- 3월** 3/1~3/14 세계여성의날 맞이 “2022 연대의런데이” 캠페인
3/2 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3/5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7회 한국여성대회 “돌봄, 연대, 정의, 모두의 내일을 위해 오늘 페미니즘”
3/11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기자회견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차별과 배제의 대신에 부처”
3/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한기 집회 “평등 없는 국회에 한 끼 대신 한 마디”
3/21 “2021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발행
3/3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된다 상담소



- 4월** 4/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동조단식
4/7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단체 공동행동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4/10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4/11 “차별금지법/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테트촌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
4/16 “여성이족부 폐지를 막는 이어말하기” 집회
4/18 4월 국회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 “박홍근, 박광은 의원님 농성장에서 만남이다”
4/20 회원놀이터 “말하는상영화: 애프터미투 GV”
4/21 가이드라인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발행
4/23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집중문화제 “평등으로 승리하자”
4/2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여성단위 기자회견
4/28-4/2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테트촌 지킴이
- 5월** 5/3 청년주거권네트워크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5/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동조단식
5/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저녁문화제~농성
5/11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
5/16 2022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주거 정책 요구 기자회견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5/18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우리는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빵을 먹지 않겠다”
5/18 한국성폭력상담소 리뉴얼 홈페이지 오픈!
5/19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5/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단식투쟁 40일차 집중문화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봄 쟁취하자!”
5/24-5/25 “차별금지법 입장 요구 10만 문자행동”
5/26 가정의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00년”
5/26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5/30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3주년 간담회
- 6월** 6/9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 승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6/9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6/15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 승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6/29 청소년x온라인x섹슈얼리티 스터디 내부 간담회 “청소년 온라인 친밀성과 범죄”



내가 만든 악몽

햇님

또우리* '햇님'이
 자신을 위로하며 쓴 글입니다.
 밤 산책을 하며 담아준 사진과
 시도 나눠보아요^^

* 상담소와 열린터에서는 컴퓨터에 머물렀던
 전 생활인을 '또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만나요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열린터 다이어리〉와 〈생존자의 목소리〉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에세이, 시, 그림 등의 형식으로 실는 코너입니다.
 본 코너는 생존자의 고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창구이며,
 교정교열 외의 편집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소의 다른 글과 편집도 논점도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힘과 의지가 있다는 건 희망의 끈을 놔버리지 않은 걸
 까? 나는 모든 일을 잘하고 싶다. 하루가 지날수록 나아졌으면 좋겠다. 평범
 하게 살고 싶다. 한번 겪은 불행이나 실수를 스스로 용납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나 자신한테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행복을
 증명하는 웃음과 말들을 했다. 하지만 나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
 짓된 나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주저앉는다.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대로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가 허다하다. 잘 지내려 할수록 잘못 지내게 되는 모순 같다. 앞으로 걸어 나
 가고 싶지만, 뒷걸음질만 치게 되는 아이러니한 순간들이 반복된다.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 세상과 타인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갔다. 주변을 잊어가면서 내 마음은 점점 편해지고 있다. 타인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던 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비교하며 나를 탓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다. 사회와 주변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서 편안하다.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포기하며 타인의 눈빛과 표정을 무시했다.

그렇다. 난 그동안의 삶을 평가받기를 원했다. 칭찬과 사랑에 목이 말라 있었다. 그래서 예전의 난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던 것이다. 비난받지 않고 누구와 비교를 당해도 나에 대한 죄책감은 생기지 않았다. 나의 의지로 했던 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원망하지 않아도 탓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저 난 나를 평가하고 싶지 않았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 하지만 인정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인정받을수록 예민했었고 스스로 평가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자신을 깎아내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모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지나치게 예민하여 오해할 때도 많았었다. 오해라는 것을 인지하고 알면서 나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나를 다그쳤다. 내가 만든 악몽이었다. 나의 바람과 목표는 잘 사는 것, 행복해지는 것, 편안해지는 것이지만 하루빨리 이루어내기 위해 나를 괴롭게 만든 것이었다.

잠시 잠깐 고통을 받아들이기 싫어 시간이 지나 나 자신을 무너트릴 수도 있는 더 큰 고통의 짐을 들려준 것이다. “나중 일은 그때 가서 이겨내야지”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나는 밑바닥의 나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다. 또 한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이다. 끼니를 먹을 때마다 먹기 전 메뉴 선정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선택하지 못하여 끼니를 먹지도 못할 때도 있다. 이유는 맛이 없어 후회하게 될 상황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보곤 자기주장이 없다며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자아가 없다는 사람 등 나에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기분 상하는 말들을 하곤 했다. 하지만 나에겐 불안은 장점이었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한 끼니는 만족스럽게 먹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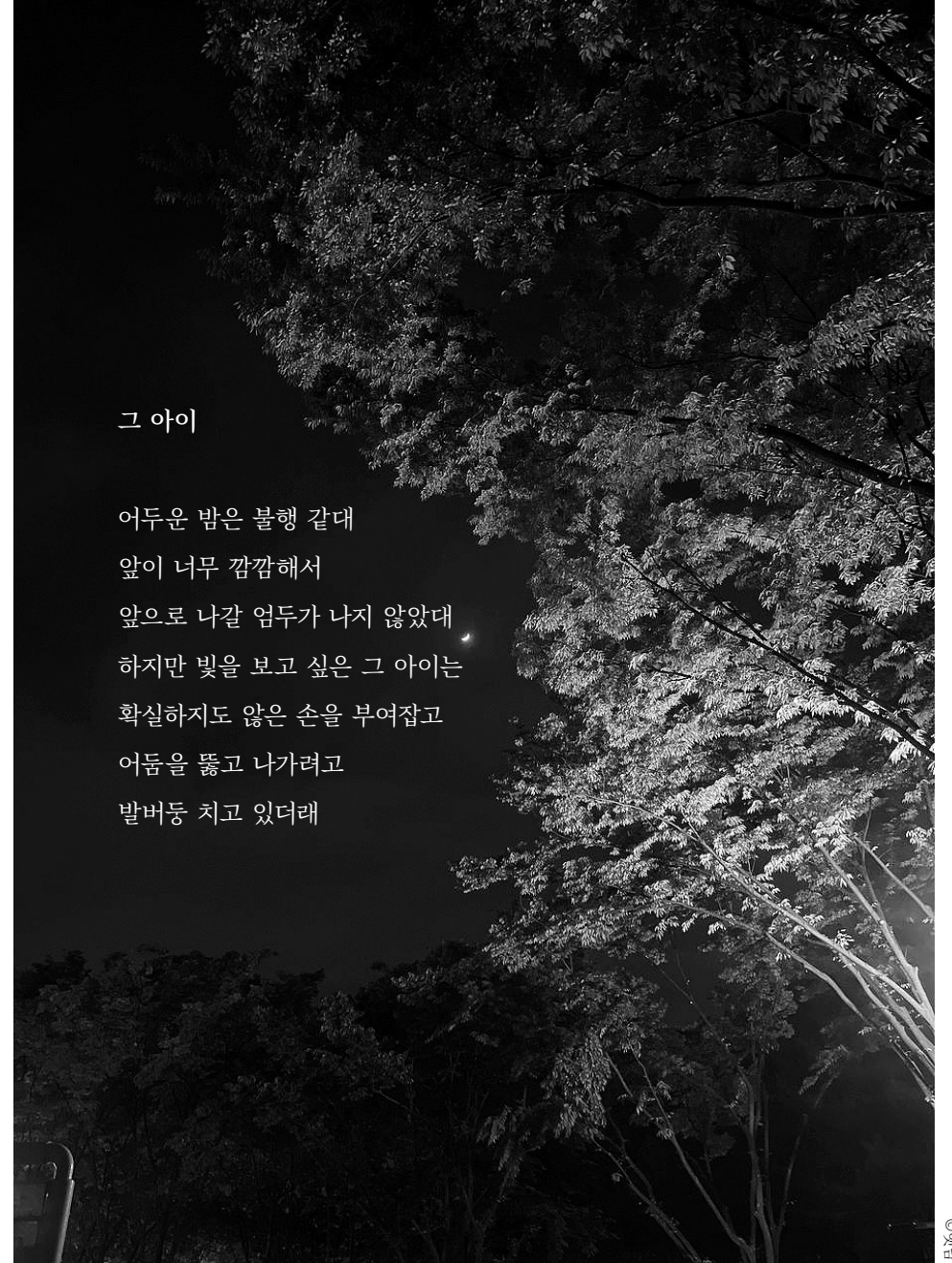
나의 불안은 어디서 왔을까? 어릴 적의 나의 환경은 눈치를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었다. 내게 집이라는 공간은 불편한 불안을 키우는 집이었고 학교는 주변을 살피고 방어하기 위한 불안을 키우는 공간이었다. 내 삶에선 편안한 공간이 없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나를 방어하기 위해 불안을 느꼈던 것이었다. 나는 쓸데없이 불안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불안이란 감정을 느낀 것이고 그런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 익숙해진 것이다.



©햇님

깜깜한 밤이 되면 두렵지만 확실하지 않은 나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간다. 깜깜한 밤이 되면 나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진다. 주변이 조용해지며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든다. 이 시간은 두렵지만, 이상하게 재밌는 순간들이 생긴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의 틀을 잡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해석하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불안이라는 감정을 이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도 불안으로 인해 실패할까 두려워 도전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난 불안을 이용해 많은 일을 도전하고 있던 것이다. ☹



그 아이

어두운 밤은 불행 같대
 앞이 너무 캄캄해서
 앞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대
 하지만 빛을 보고 싶은 그 아이는
 확실하지도 않은 손을 부여잡고
 어둠을 뚫고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더라

©나눔터

다시 길 위에 서다

희망

‘
기억이 올라온 후에도 상담은 계속되었고
상담 선생님은 분노 직면 작업을 제안했다.

“이서 씨, 이제 분노 직면 작업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서 씨가 과거의 기억에서 얼마만큼 벗어나고 회복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선생님, 지금은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 괜찮아지면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기다릴 테니 이서 씨가 준비되면 얘기해줘요.”

종만이 세상을 떠나고 1년의 시간이 지났다. 갑상선 기능항진증 약 복용도 중단할 만큼 체력을 회복했다. 이서는 이제는 그 작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언젠가 그녀의 분노를 꺼내놓지 않으면 결국 억압된 기억이 평생 이서의 발목을 붙잡고 질질 끌고 다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상담실에서 선생님과 마주 보고 앉았다. 다시 그날의 기억으로 돌아갔다. 이서는 계단을 올라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1989년 6월의 어느 날 새벽이었다. 침대 옆에는 영수가 서 있었고 22살의 이서는 잠결에 누군가 방 안에

*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알립니다.

들어왔다는 기척을 느꼈다. 영수가 침대 위로 올라왔고 이서는 영수 밑에서 버둥거리고 짓눌렸다. 그 순간 상담실에 있는 이서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분명 32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기억만 떠올렸을 뿐인데도 이서는 의자에 손, 발이 묶인 듯 앉은 자리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온몸이 경직되었다. 가위에 눌릴 때처럼 의식이 또렷한데도 숨만 헐떡거릴 수 있을 뿐 꼼짝할 수가 없었다. 마비 증상은 15분간 이서의 몸을 집어삼켜 지속되더니 서서히 사라졌다. 그 순간에 알았다. 그날 성폭행을 당하던 시간이 15분간이었다는 것을.

“선생님, 아무리 입을 열어 말하려고 해도 목소리도 안 나오고 온몸을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사건이 있던 날 밤으로 돌아가 그 순간의 기억을 온전히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힘들었죠? 이제 기억을 직면했으니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거나 호흡곤란 증상은 더 이상 겪지 않을 거예요.”

원인 모를 신체적 증상과 기억을 잃었던 이유들도 분노 직면 작업을 통해 설명되었다.

처음 기억이 올라왔을 때 이서가 유체 이탈을 한 듯 떨어져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건 ‘이인증’이었다. 심각한 외상을 경험할 때 자기 자신, 경험, 신체로부터 이탈한 것 같이 느끼는 증상이다. 그날 이후 모든 기억을 잃은 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후유증인 ‘해리성 기억상실’로 외상 사건의 일부분 혹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상담 선생님은 해리성 기억상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서가 애

착 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24개월 이전에 지속적으로 탁아소에서 학대에 시달렸는데다가 5학년 때 이미 충격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을 경험해 본 것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에 정서적, 신체적으로 압도되자 몸과 마음으로부터 기억이 해리되는 현상으로 이서 자신을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이서는 생존하기 위해 기억을 삭제한 대신 20년이 넘는 시간을 불면증과 우울감,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멈춰진 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이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지난 20년의 원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서는 분노 직면 작업 때처럼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다. 6장 내용인 1989년 6월을 기록할 때 생리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자궁선종을 치료하기 위해 자궁 내 피임장치를 시술했기에 평소 생리 양은 아주 적은 편이었다. 삽입형 생리대를 한 상태에서 가장 두꺼운 패드를 대고 있는데도 침대가 흠뻑 젖을 만큼 피가 쏟아졌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이었지만, 신체화 증상은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유발된다는 걸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서는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왜 이러는지 내가 알고 있어. 이제 괜찮아. 그 일은 다 지나갔어”

이서가 인지하는 순간, 피가 멎기 시작했다. 1989년 6월 21일, 그날이 바로 성폭행을 당했던 날이었다. 기말고사 마지막 날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날짜는 몰랐던 이서는 증상을 통해 사건이 벌어진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서의 증상은 외상 사건을 경험했던 시점 전후로 증상들이 더욱 빈번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기념일 반응’이었다. 외상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처음 성폭력상담소를 찾아갔을 때 이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과연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하는 부분이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돌아가며 이서에게 미쳤다고 했지만, 기억 직면 작업을 진행하며 드러나는 증상들은 그 일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해주었다. 증거도, 기억도 사라졌지만, 이서의 몸만은 그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상담사는 이서의 말을 믿는다고 했다.

“저는 이서 씨 말을 믿어요.

친족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아버지나 오빠가 가해자고 딸이나 여동생이 피해자인 경우를 생각하지만 의외로 어머니의 가해 행위를 호소하는 남성 피해자가 많아요. 차이가 있다면 이런 피해자들의 경우 상담소를 직접 찾아오거나 대면 상담을 요청하기보다는 전화로 피해를 호소하세요. 자신을 낳아주고 돌봐준 어머니가 가해자임을 고발하는데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흔히 쓰는 ‘근친상간’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에요. 서로의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가 아니니 ‘근친강간’이 정확한 용어인 거죠.”

원고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상담 선생님은 다시 이서에게 1989년 6월의 기억을 직면하는 작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서 씨, 원고를 쓰기 전에 했던 기억 직면 작업을 다시 해볼까요? 원고를 쓰는 건 다시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니 이서 씨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 봤으면 해요.”
 “네. 선생님, 다시 해볼게요.”

신네 살의 이서는 다시 상담 선생님을 마주 보고 사건이 벌어졌던 그 집을 찾아갔다. 이서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는 스물두 살의 이서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고 있었다. 어린 이서는 어린 이서에게 말했다.

“이서야, 이제 이 방 밖으로 나가자. 내가 너와 같이 있을게. 여기서 나가자.”

“아뇨. 저는 아직은 더 울고 싶어요. 충분히 울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 방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미 모든 기억이 올라온 상태에서 스물둘의 이서는 그 방을 나설 수가 없었다.

원고를 마무리한 후 이서는 다시 기억 직면 작업을 진행했다. 이서는 그날로 돌아가 대문을 열고 현관을 지나 계단을 올라서 방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스물둘의 이서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고 있었다.

“이서야, 이제는 밖으로 나갈 수 있겠지? 겁내지 마. 네 곁에는 내가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고 약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니가 원한다면 이 방 밖으로 나가면 돼.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어린 이서는 이번에는 이불을 걷고 울고 있던 어린 이서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다. 어린 이서가 따라나섰다. 문밖에는 지숙과 영수가 있었다.

“어디를 가는 거야? 이서는 놓고 가. 이 방 밖으로 아니 이 집 밖으로 아무도 나갈 수 없어!”


영수가 막아서고 지숙이 붙잡았지만 어린 이서는 영수를 밀치고 지숙을 뿌리치며 어린 이서와 함께 집을 나왔다. 둘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지나 드디어 길 위에 섰다. 그리고 함께 힘껏 달렸다. 더 이상 그 집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숨이 차게 달려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섰다. 드디어 모든 게 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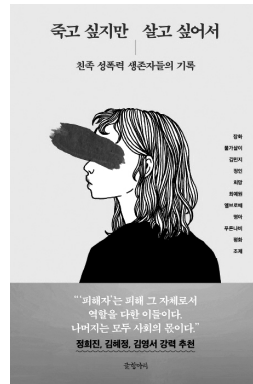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도, 원고 작업도 모두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인다. 이서는 자신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깊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슬픔이 남아있다면 굳이 빨리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다. 이서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한 발 떨어져서 정확한 문장으로 기록함으로써 개인적 사건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글을 쓰기 전에는 피해자였지만 기록을 한 후에야 이서 삶의 증인이 되고 생존자가 되었다. 그 일을 기록함으로써 이서는 드디어 스스로에 대한 비난과 자책을 멈추고 온전히 자신을 수용하게 되었다.

직계가족에게 성폭력을 당한다는 건 자신이 딛고 있던 땅이 떨어져 나가는 걸 지켜보는 경험이다. 디딜 땅이 없는 세상의 끝에서 절벽에 매달려 삶을 이어가야 하는 과정이다. 가족이 가해자가 되고 방관자가 되는 건 그누가 짐작하려 애써도 그 아픔에 도저히 닿지 못하는 고통일 것이다.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이서의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이고, 그 시간마저도 그날 이후 멈춰버렸다. 그 속에서 서 있는 이서가 다시 시간을 돌리며 현재를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존자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절벽에 매달려 살려

달라고 소리를 칠 때 이서의 부모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떼어내 그녀를 떨어 뜨렸다. 하지만 이서를 지켜준 지인들과 상담 선생님이 있었기에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서는 [오이디푸스 패밀리]를 시작으로 생존자로서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이서의 글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면, 이서는 글을 쓰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마주하고 통과해왔던 그녀의 길에서 다른 사람의 상처와 연결되고 만나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서의 글을 통해 누군가는 죽고 싶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것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도 빛을 찾아 계속 걸을 것이다. 이서도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이다.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서는 뒤를 돌아본다. 한 문장, 한 단락을 지날 때마다 매 순간 다시 상처가 벌어져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다. 이제 이서는 그 상처가 자신의 한 조각임을 안다. 상처와 그늘도 품은 이서가 여기서 있다.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 당신에게

반민정

안녕하세요,
배우 일을 하고 있는
반민정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상대 배우에게 성범죄피해를 받았고, 성범죄 가해자는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성추행 유죄 판결'에 관한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각종 정보통신망과 유튜브, SNS 등에 피해자인 저에 대해 허위 비방을 하고, 성범죄사건 소스로 수익을 창출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이 2차 가해 재판 또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21년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해자가 그렇듯, 가해자는 지금도 사과논커녕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7년간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재판을 하며 지속된 2차 가해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 가해자의 끔찍한 성범죄와 2차 가해에 동조하고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들도 추가로 입수하게 되어 또 한 번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지 “살기 위해” 대응해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피해자가 될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 위해, 혹은 피치 못해 피해를 입었다면 대처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고 '법대로' 한 선택 이후,
법대로 하라고 하여 법대로 해 승소했지만,
솔직히 선뜻 피해자들에게,
법대로 하라 권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조언을 여쭙는 피해자들에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 피해자들에게 걱정부터 들었어요.
생존자로서, 이젠 어떤 조언을 해주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린 이 친구들이 악랄하고 집요한 나쁜 사람들을 대응하며 수년의 법과의 시간 속에 고통을 겪을 것이고, 판결 후에도 일상 회복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어린 나이였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여러 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도 성범죄가해자 조득제의 말들이, 피해자를 폄하하기 위한 허위 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7년가량 과거에 묶여 있는 저는, 지금도 부단히, 아직도, 저는 일상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부디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잘 견디고 있어요.
앞으로 당신에겐 먹구름이 걷히고 무지개 길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불행해지거나 죽지 말기로 해요.
우선 살아요, 우리. 

적 합 소 :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를 소개합니다

신아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9

4월 21일, 상담소는 적극적 합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를 발간했습니다.

배포 신청을 받은지 세 시간도 되지 않아 조기마감될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신아 활동가가 가이드라인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성문화운동팀은 <새로운 반성폭력 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여러 멋진 성과물¹이 만들어졌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새로운 반성폭력 성문화 이정표,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는 '성적 동의 경험 및 인식'에 대하여 총 1,02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대중 설문조사와 9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를 비롯, 적극적 합의를 잘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및 워크숍 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일상의 여섯 가지 장면으로 적극적 합의를 대중적으로 알린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주제, 관계, 응용편 세 가지 시리즈의 <동의X동의 적극적 합의>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활동 영역의 주체들과 만나 적극적 합의 담론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제작 배경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는 성적 동의의 원칙, 지향, 기준으로써 적극적 합의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상담소는 2019년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요. '적극적 합의'가 일상적인 관행이자 공적 판단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제 시민들이 어떻게 '동의'에 대해 생각하고 성적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상담소에서 그동안 이야기해온 적극적 합의 다섯 가지 원칙이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데이트하는 상황이거나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 자체가 '동의 여부'에 어떤 영향을 만들어내는지, 성별에 따라 성적 동의에 대한 다른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성들은 어쩔 수 없는 수락을 더 많이 하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강조하고 싶었던 것

그동안 '적극적 합의'를 개념화하여 알리는 작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설계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적극적 합의는 성적 동의와 어떻게 다른 새로운 개념인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내외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도 밝혔듯이 상담소에서는 동의를 쓰이는 현재의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동의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에게 일방향적으로 제안하고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확인 절차를 의미하곤 합니다. 미디어에서 재현되거나 '성적 동의'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장면처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성적 행위에 대해서만 행위 직전에 이

루어지거나 사실상 생략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성애중심적인 로맨스 각본을 따르고 있어 현실의 여러 관계 및 실천과 어긋나있고, 행위자의 취약한 조건이나 행위자 간의 권력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명제를 원칙 없이 강조하면 성적 동의의 현실적 한계도 함께 강조하게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적극적 합의’라는 명료한 기준점을 제안하였습니다. “상호적이고 자발적이고 평등한 과정”으로써의 성적 동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민주적 성적 실천과 관계를 여는 이정표로써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강간죄는 ‘동의를 있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만큼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로 범죄의 성립을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고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투운동에서 접했던 ‘권력형 성폭력’은, 직장, 학교, 업계 안에서의 권력 차이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2019년 1월~3월까지 상담한 강간 사례 통계 분석 결과,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던 사례가 71.4%에 이르는 현실입니다.

‘성적 동의 여부’를 성폭력 판단기준으로 두지 않는 법적 현실에서, 대중 인식조사에서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²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다’라는 문장에 96.7%가 ‘그렇다’, ‘매우그렇다’라고 응답했지만,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게 되면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

호해진다’에도 비교적 높은 수치인 60.5%가 ‘그렇다’, ‘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동의를 ‘항상 또는 상황에 따라 묻는다’는 응답이 98.8%였지만, 암시적으로 또는 느낌으로 파악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은 비율인 42.9%에 달했고, 이전에 성적 행동을 했던 맥락이 있을 때 상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적 행위를 수락한 경험을 성별로 나눠 보면 응답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두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적 동의 시 두 가지 지점을 강조합니다.

- ① 상대방의 의사는 말과 행동을 통해 명시적으로 구해져야 한다
- ② 어쩔 수 없이 수락한 성적 행위는 동의가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의 기본은 명시적으로 묻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상대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그대로 밝힐 수 있는 평등한 관계인지, 의식이 있는 상태인지, 참여하는 성적 행위의 성격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지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무시하고 ‘동의’가 상대방에게 ‘yes’라는 말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되거나 행위 직전에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여겨진다면, 명시적으로 확인했다라도 충분하지 않다”(45)

“자유롭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수락한 것은 동의가 아니다. 일방이 지속적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여 죄책감이나 의무감을 심어 압박하는 상황, 한쪽의 행위자가 술을 마셔서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인 상황, 어떤 행위에 참여하는지 정보가 없거나 성적 경험에 대한 차이가 심하게 나서 한쪽에만 주도권이 있는 상황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가 무시, 제한, 방해, 제압될 수 있다.”(57)

2) 성적 동의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조사의 조사A, 조사B 중에서 조사A에 한하여 기술함.


충분히 알아봤다면, 준비하기! 체크해보고 토론해보기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워크숍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동의'에 대해 어디서부터 토론을 해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 보드게임 형식의 질문판을 주사위를 굴리며 따라가다 보면 풍성한 이야기의 장이 펼쳐집니다. 칸칸에 적혀있는 질문들은 그 자체로 새로운 사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체크리스트는 구체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내가 어땠지?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지?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었는지? 차분하게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동의'를 중심으로 존엄한 세계 재조직하기

성적 동의에는 나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나는 존엄한 사람이라는 선언적 힘이 있습니다. '동의'에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동의를 제안하고 수락하는 모든 주체에게 평등하게 있다는 원칙을 필연적으로 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균형한 권력관계 위에서 어떤 행위를 제안하고 수락하는 현실 속에 있지만, '동의 여부'가 당연한 명제가 된다면 권력을 가진 일방이 나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제압하지 않도록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수록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폭력을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적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펼쳐줍니다. 동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한 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엔 무엇을 하나요?

올해는 2021년의 활동을 여러 현장에 알리려 합니다. <찾아가는 교육>과 <주제 및 대상별 워크숍>을 통해서 적극적 합의가 왜 중요한지 공감하고 실천의 실마리를 같이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 현장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활동은 상담소에게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오고 적극적 합의 담론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글이 나갈 때쯤엔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이드북 보러 가기 ▶



꺼진 '낙태죄'도 다시 보자,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앞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낙태죄' 폐지 후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논의가 '중지'된 지금,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상담소에서 활동한 지 어느새 5년, 재충전 휴가를 사용하여 미국에 있는 할머니 댁에 다녀왔습니다. 입사 후 처음 만나는 할머니와 이모에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면서 가장 침 튀기며 소개한 활동은 바로 '낙태죄' 폐지 운동! 우리의 운동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67년 만에 법적 효력을 잃었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룬 국가가 되었다고 자랑했지요. 저는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현재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허세 가득한 에피소드까지 곁들여서 말이에요.

할머니와 이모가 거주하는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임신중지규

제법'을 시행하고 있어서 특히 할 말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 따라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중지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해왔습니다. 임신중지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되 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이었죠. 일부 보수적인 주에서는 의료 기술 발달 등을 근거로 제한 시기를 점차 앞당겼고, 현재는 20주-25주부터 임신중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텍사스주는 2021년 9월 의료인이 태아의 심장박동을 확인한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임신중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사실상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지요.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대신 어려운 조건을 달고 접근성을 낮춰서 임신중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이모에게 들은 말입니다. 미국에서 산책하다 우연히 지나친 어느 집 마당에는 ('심장박동법'을 통과시킨) 현 텍사스주지사에 반대한다는 현수막 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웬걸, '불법 낙태약'이 문제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당한 20대 여성이 불법 유통되는 유산 유도제를 사 먹고 조기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언론은 마치 '불법 낙태약' 때문에 '영아살해죄'가 일어난 것처럼 사건을 자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여성이 임신 후기에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의료기관이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할 때 당사자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식약처는 왜



아직도 유산 유도제 승인을 미루고 있는지, 후기 임신중지를 하는 경우 '살인죄'나 '영아살해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인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4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가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지 3년, 낙태죄가 법적 효력을 잃은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연대와 투쟁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성취를 함께 기념하고 다시 한번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들을 짚는 대중 집회였습니다.

파아란 하늘 아래 햇살이 하얗게 부서지는 일요일 봄날. 참여자들의 자유 발언과 싱어송라이터 예람 님의 지지 공연, <진짜 임신중지송>, <우리 모두 다같이> 등 다양한 개사곡과 함께하는 행진 등이 이어졌습니다. 사회를 맡

은 저는 무대에서 색색의 피켓을 든 이백여 명의 참여자들을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참여자께서 구호 앞에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를 반영하여 다 같이 힘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식약처는) “유산 유도제 즉각 승인하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국회는) “성·재생산 권리보장법 만들어라!”

(정부는)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라!”

얼마 후,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예정이라며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보수적인 연방대법관이 다수 임용된 상황에서 텍사스주처럼 엄격한 '임신중지규제법'을 제정한 후 법적 다툼에 부치는 사례가 늘어났고, 그 결과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해온 기존 판례를 무효화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미 미국 13개 주에서는 이른바 '방아쇠 법'을 제정하여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임신중지금지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¹

단순히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권리로써 보장하는 법과 제도와 사회 인식을 마련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해외 사례를 보며 체감했습니다. 한국도 '낙태죄'를 되살리거나 임신중지 접근성을 낮추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래시를 막고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1) 6월 24일,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본 원고는 폐기 결정 전에 작성되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반쪽짜리 판결

유랑 |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9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같은 사건의 판결이 달라진다?

성폭력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맥락, 위력 등 피해상황에 대해 넓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성폭력 사건'의 판결을 전합니다.

2022년 3월 31일은 무려 3년 4개월을 기다렸던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외친 시각, 현장에서는 기쁨의 환호성이 잠시 들렸다가 곧이어 아쉬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같은 사건에 두 가지 상반된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군 여군이 직속상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관은 성소수자였던 피해자에게 '남자 경험을 알려준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병원에 가야 했던 피해자는 합선의 총책임자였던 함장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함장은 총책임자로서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성폭력 가해를 했

습니다.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피해 사실을 몇 년간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2017년,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2018년,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심 재판부는 직속상관, 함장 두 가해자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의 용기 낸 고소가 가해자의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1월, 놀랍게도 고등군사법원은 1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두 가해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및 협박'에 대한 두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폭행 및 협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때리거나 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를 모두 포함하는데 1심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무게를 실어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폭행 및 협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 자체보다 피해자가 당시 저항을 했는지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성폭력의 구성요건인 '폭행 및 협박'을 훨씬 더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지요.


'폭행 및 협박'이 있었는지 보려면, 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군대는 상명하복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수직적인 조직입니다. 특히, 좁은 배 안에서 단체생활하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해군은 집단주의 문화가 더 강한 곳입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환경에서 모든 상황을 통솔해야 하는 군 상관의 위력은 더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군 상

관을 상대로 신임 장교였던 피해자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피해자가 동성애자임을 이미 알고 있던 가해자는 뻔뻔스럽게도 피해자가 본인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2심 판결문에는 이러한 가해자의 변명만 인용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성소수자 정체성은 빠져있었습니다. 가해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넘도록 대법원은 움직이지 않았고,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은 대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은 2차 가해자인 함장에게는 ‘파기환송’을, 1차 가해자인 직속상관에게는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기환송이란, 고등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는 뜻이고 상고 기각은 고등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잘못이 없으니 (피해자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함장에게는 유죄 취지 판결이, 직속상관에게는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피해자가 같고, 피해자가 직속상관의 성폭력 피해로 도움을 요청했던 함장에게 추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임에도 각기 다른 재판부에 배정되어 다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을 했던 대법원 제1부는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주요 부분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의 구성요건인 ‘폭행 및 협박’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초급 장교로서 지휘관인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행사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지향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언급되었

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사건을 바라본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제3부는 원심(고등군사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성립 요건을 판단한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을 했습니다. 즉, 성폭력이 발생한 상황과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모두가 공분했던 부당한 2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대법원 제3부의 관점은 2심 판결과 같았습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인데도 재판부가 어디인지, 판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결 선고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법원을 신뢰하고 피해자가 용기 내 신고할 수 있을까요? 상고 기각 결정은 군대가 성평등한 상식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반쪽짜리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반쪽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선고에 따라 함장 가해자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일상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군대 내 성폭력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현실을 기억합니다. 성폭력을 신고한 군인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국방부와 군대를 지켜보고, 제대로 된 보호 체계를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내어 합니다. 파기환송심 결과가 가해자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가 2차 피해 없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보러가기 ▶



신입활동가 인터뷰

상담소의 새 사람, 세 얼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 | 회원홍보팀 활동가

’

요즘 상담소는 한층 더 시끌벅적 해 졌습니다.

상반기에 신입활동가가 셋이나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상담소에서 활동가로서의 길을 써내려갈 동은, 산, 해를
환영의 마음으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



마침 생일이 있는 달이 모두 같은 신입활동가들! 설마 이건 운명...?☆ (왼쪽부터 산, 동은, 해)

올해 상반기,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새 사람이 셋이나 들어왔습니다. 늘 바쁜 성문화운동팀의 인력 충원으로 함께하게 된 동은, 신설된 회원홍보팀에서 활동가로서 첫발을 디딘 산, 그리고 상담소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고 든든하게 챙겨줄 해. 세 사람이 둘러앉아, 동료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타코와 반미 샌드위치로 간단한 저녁상을 차리고, 활동가들의 질문이 적힌 쪽지를 한자리에 모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Q. 상담소에 출근한 뒤로 먹은 가장 맛있는 음식은?

동은 _ 나 똑같은 거 썼는데(웃음) 충격 먹었던 건, 지금은 퇴사하신 백목련이 요리를 진짜 잘하신다고 들어왔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한 번은 점심에 중국식 당면 볶음 요리를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다음 날에는 전날 술을 많이 드셨다고, 그래서 칼국수인가 버섯전골을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엄지척)


해 _ 여기 식당 아니에요?(웃음)


산 _ 전 얼마 전에 낙타가 해준,





열린터 활동가 낙타의 버섯칼국수


 **동은** _ 허억

 **산** _ 버섯 칼국수!


 **동은** _ 근데 그거 진짜 파는 맛 났어요. 그 왜 등〇칼국수.


 **산** _ 맞아맞아. 그리고 예전에 파랑이 해줬던 야채수프도 맛있었어요


 **해** _ 안 그래도 어제 퇴근할 때 앞이랑 같이 나갔는데, 런치타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아직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다인원의 식사를 챙길 여유가 없다고 그랬는데, 앞도 처음에 왔을 때는 요리를 진짜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메뉴 듣고 난 후로 더 자신이 없어졌어요.


 **동은** _ 아~ 그래서 약간 당번표도 요뭇(요리 못함), 요잘(요리 잘함) 이렇게 해두셨더라고요. 처음 들어왔을 때 상담소분들, 음식에 되게 진심이구나, 했어요.


Q. 활동가란 무엇일까요?


 **산** _ 란 글씨 같은데(웃음) 아, 다른 쪽지에도, '상담소는 모든 구성원을 활동가로 부릅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활동가의 자질, 태도 한 가지씩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해** _ 제가 쓴 거 자진신고 할게요(웃음) 저도 비슷하게, '활동가라는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라고 질문했어요.


 **동은** _ 그쵸, 활동가를 접하게 된 각자의 경험이 활동가란 무엇인지 정의하는 거랑 연결될 것 같아요.


 **산** _ 으음 전 그냥 멋있어서...(웃음) 직함이 갖는 멋...?


 **동은** _ 아, 액티비스트?(웃음)

 **산** _ 전에 다른 기관에서 공익활동가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거기서 활동가라고 불리는 분들을 처음 봤어요. 그때 그냥 오오~ 활동가~ 약간 이렇게(웃음) 저는 별로 막 크게, '활동가는 나한테 이런 거니까 그런 사람이 되겠어!'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해** _ 저도 몰랐어요, 이 세계를. 그냥 뭐랄까, 밖에 나와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참 많고 넘치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아니라고 되게 멀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지역에서 지내는 동안, 제 안에 어떤 것들을 자꾸 꿈틀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활동가가 될 생각까지는 없었어요(웃음) 그냥 거길 떠나는 선택을 했거든요. 왜냐면 활동가가 하는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보이니까, 처우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마음을 많이 써야 하잖아요. 근데 잘 안되거나 했을 때 느끼는 패배감이나 좌절감을 더 크게 느낄 것 같다는 저만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모집 공고 하나를 보여줬어요. (상담소에서) 호랑이처럼 활동할 활동가를 찾는다고. 그래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탈락 된 거예요.

 **산** _ 해한테 공감하는 게, 저는 동물권에 관심이 많아서 동물권 단체를 생각한 적도 있는데요. 막상 그 분야에서 일하면 제가 맨날 울 것 같은 거예요.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활동가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맞서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동은** _ '활동가가 무엇일까' 이게... 지금은 뭔가가 문제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게 문제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제의식을 공식적으로 모아서 어떻게 잘 드러낼까 고민하는 사람.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사실 어려워요.

 **해** _ 이전 계속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웃음)

Q. 나의 페미니스트 모먼트는?

산 _ 저는 어렸을 때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명확히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 몰라서 그냥 웃고 넘기는 일이 많았어요. 무의식으로는 무례한 혐오 발언이라고 자각하는데 의식적으로 몰랐던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고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그 말이 왜 혐오 표현으로 다가왔는지. 그때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논리를 만드는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전에는 흘러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캐치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페미니스트임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별로 거창하지는 않아요.

동은 _ 전 '나 페미니스트야'하고 자각하게 된 계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세미나 들을 때 같이 공부하면서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같이 사부작사부작 모여서 뭐가 문제야 얘기하고, 그런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 '너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약간 공격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에 더 쉽게 '어!'할 수 있게 된 거?

해 _ 이게 시기별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다녔던 때에는 전혀, 이런 감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지내왔던 시간이 길었다보니까, 나중에 이런저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게 문제라는 걸 인지하는 게 늦었어요. 저는 이민경 작가님의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책을 18-19년도에 보았는데, 그동안 제가 느꼈던 답답함이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이 뜨인 순간들이 기억나는데, 동은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동은 _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 오랫동안 공적으로 얘기되지 않는 시기가 있었다가, 이제 막 다시 얘기되는 시기에 학교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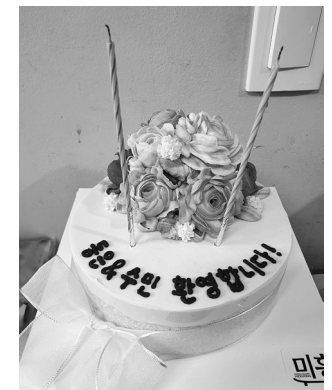
Q. 1년, 5년, 10년 뒤 나의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해 _ 학자금 대출을 다 툰다(웃음) 가까운 1-2년 내의 목표는 이렇고, 5년까지는 아직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조금 기대해보자면, 한 5년 정도 됐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묵혀뒀던 경험들을 해소하고 털어낼 수 있었으면 해요. 그렇게 마음 수선을 열심히 해보면 나를 단단한, 활동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살짝은 되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10년은 굉장히 먼 미래라서 고려하지 않아요.

산 _ 저는 활동가가 되는 게 몇 년간의 목표였기 때문에, 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라면 1년 후에도, 5년,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일할 것 같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어떤 경험을 해서 어떤 인생을 설계할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커리어 측면이 아니고 개인의 모습 정도로 물어보시는 거라면... 그냥 좀 더 당차지지 않을까요. 당차고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해 _ 맞아요, 무너지는 것 말고 당차지고 싶은 거예요.


동은 _ 전 1년은 계속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5년은, 전에 신아¹가 재충전휴가 돌아오고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밥 먹는데 저한테 5년 후에 재충전휴가 받으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대답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래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자기만의 노래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곡 워크숍에 가서 노래도 만들고 싶고, 또 상담소 다녀보니까 집회나 시위에는 노래가 있어야 돼요(웃음)




— 동은과 산의 출근을 환영하는 케이크


1) 성문화운동팀 소속 6년차 활동가


 **해** _ 멋있는 목표네요.


 **산** _ 그럼 이제 10년 후에는 저작권료가...(웃음)

Q. 앞으로 상담소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나요?

 **해** _ 초년생의 경우에는 힘이 들어가서 잘 해내고 싶고,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그때그때 부딪혀 나가면서 경험하는 거고, 내가 품은 기대에 사람들이 꼭 들어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 기대하기보단, 서로 조금씩 알아가면서 잘 맞춰 지내보면 좋겠어요. 다른 회사에 비해 서로 훨씬 존중하는 모습이 되게 좋은데 잘 유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산** _ 저도 희망 사항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3개월 막 넘겨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담소의 이 구성원과 분위기가 엄청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구성이 평생 같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들고나고, 분위기와 규칙도 따라서 달라질 테고. 그래서 그냥,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희망 사항을 물어본다면 지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 정도?

 **동은** _ 앞으로 펼쳐질 시간을 생각해봤는데, 현 정권을 상담소와 함께 보내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주했다면 더 막막하고 불안했을 텐데, 앞으로의 시간을 서로 잘 돌보고 또 단단해지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상담소에 출근한 첫날을 떠올리며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분량상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를 신지는 못했지만, 솔직하게 마주 앉아 서로에 대해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상담소의 여정에 합류한 세 사람을 응원해 주세요! 

내가 자원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유

채원 | 자원활동가

‘자원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지요.
자신의 시간을 흔쾌히 타자에게 내어주는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작년 11월부터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시는
자원활동가 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졸업 후 칼 취업’ 소망을 비웃듯, 대학을 수료한 지난 가을부터 제 삶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루나 이틀 상담소의 일을 돕고, 삼 일은 생활비와 월세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은 주말 중 하루를 빼서 공장식 축산업과 동물실험의 피해생존돼지들을 돌보러 새벽이 생추어리에 갑니다. 장래에 활동가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이러한 활동을 경력으로 적어내면 낙제점을 주겠지요.(실제로 최근 상담소 자원활동 경력을 써내고 본 어느 기업 면접에서 한 남성 면접관은 “무서운 곳에서 일하지 않았냐”며 “지금도 녹음기를 켜놓고 있을 것 같아 말을 못 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상담소를 알게 된 것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상사의 추천을 통

해서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상담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상담 전화를 걸지 않고 자원활동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픔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함께 그 고통을 인정하고, 해결해주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온전히 나 혼자 그 사실을 몰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함부로 말을 엿어 '아픔을 느낄 권리'를 빼앗아 가진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러면서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간 것은 혼자 고통을 안는 것이 벽차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땐 스스로도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모르는 무언가를 계속 세상에서 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내 감정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나에게 전해줄 사람을. 보이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다시 설명해주는 '공감'을 줄 수 있는 이들이 모인 곳어요. 저에게는 상담소와 생추어리가 그런 곳이었습니니다.



신선한 풀을 음미하는 새벽이의 코



빗질에 몸을 맡긴 잔디

상담소에 큰 간판이 없고 열립터를 비롯한 국내 성폭력피해생존자보호시설이 입소인 보호를 위해 그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듯, 생추어리 역시 위치와 입소 동물의 구체적 수를 알리지 않고 활동합니다. 철저한 내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외부 위협과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겪어온 점도 닮았어요. 동근 지구에서 쉼터를 제외한 모든 공간이 생존을 위협할 때(어떨 땐 쉼터조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킬 수단은 아무도 모르는 '노 웨어'(nowhere)로 숨는 것뿐인 건지 고민하게 된 것이 몇 달이 지났는데도 답이 요연합니다. 상담소와 생추어리는 같은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둘 다 해결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무력감으로 다가올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을 매개로 하지 않고 공통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담소에 오면, 새벽이의 발이 다 나왔냐는 질문을 받고, 생추어리에 가면, 차별금지법 집회 발언¹ 잘 들었다는 격려를 받습니다. 경계를 넘나들며 모두의 안위를 살피는 사람들이 가장 큰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김승희 시인의 말처럼, '사랑은 현실 속에서 누추한 것, 가난하고 결핍된 것, 힘든 중노동'이지요. 제가 본 상담소와 생추어리 활동가들은 그 고된 노동에 마음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통념과 달리, 공감은 자동반사적인 감정이라기보단 매 순간 우리가 힘을 들여 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우리 자신을 확장하겠다는 선택. 설사 나 자신의 슬픔에 깊이 빠져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몸짓을 해 보이겠다고 말하는 것. 공감과 사랑이 체력을 요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매번 집에 돌아오면서, 오늘 만났던 활동가들의 얼굴을 곰씹곤 합니다. 저번에 만났을 때보다 낮빛이 밝아졌는지, 목소리가 쉰 것은 아닌지, 기력이 좋아 보였는지 더듬어

1) 3월 1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주관한 <평등 없는 국회에 한 끼 대신 한 마디> 집회. 상담소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봐요. 일을 더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시킨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아직 못미더운 건지 답 없는 질문을 자문해보기도 합니다.

밥 먹는 일, 먹고 난 것을 치우는 일, 싸우고 화해하는 일, 죽은 사람을 품고 사는 일까지 온통 쓸쓸하지 않은 것이 없는 일상 속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받는 사랑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은 오히려 제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상처가 끌어당기는 중력이 너무 강해서 삶이 상처 안으로만 기울었어요.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은 '이해를 못 해서', 대학 동기는 '상처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이 미워서 자꾸 날카로워지는 마음과 사랑하고/받고 싶은 마음이 서로 엉켜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를 버려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다 같이 먹을 밥을 짓는 것은 빼놓지 않는 상담소, 생추어리 안 새벽이와 잔디 저녁밥 옆에 자주 놓여 있는 사또밥을 먹고 다시 사랑할 힘과 용기를 얻은 덕분입니다.

쓸쓸하지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다른 이의 삶에 다가갈 여유가 적습니다. 자발적 주고받음을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에 대해 적으면서 마지막까지 물질적인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 되겠지요. 저는 상호적인 동일시가 가능한 특권을 누린 운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곳이든 대부분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저를 둘러싼 다정한 관계 그물망은 저의 활동을 응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구조적 억압을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실천으로써 소명감을 가진 자원활동가들과 다르게 너무나 일인칭의 세계에 빠진 글을 쓴 것 같기도 합니다. 거창한 이유도 마땅히 없으면서, 이미 받아놓은 제목을 고칠 자신도 없어, 별수 없이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려운 주제라고 툭툭거리

다가 세상천지에 삶 내내 타인이 시킨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생각하다 보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하는 ‘자원’ 활동이 궁금해집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든, 친구나 가족을 위한 것이든, 얼굴 모르는 사람을, 얼굴을 잃은 비인간 동물을 위한 것이든 말이예요. 



열심히 땅을 파헤친 잔디.
흙이 잔뜩 묻은 코가 사랑스러워요! _____

비영리도 '스마트'할 수 있습니다

닷별 | 회원홍보팀 활동가

9

갑작스레 들이닥친 세계적 전염병으로,
상담소는 활동가들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그 과정에 가장 많이 기여한 상담소의 스마트워커 닷별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며 회원소식지 나눔터에는 비대면 시대의 여러 고충과 단면을 담은 글이 실렸습니다. 상담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전화를 받아야 하는 활동가, 민감정보 외부 반출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활동가 등 저마다의 제약 때문에 재택근무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때마다 언급되는 말이 습니다. '회원 관리 업무와 홍보물 제작 등 온라인 기반의 업무가 많은 모 활동가는 재택근무에 잘 적응했습니다' 라고요. 그 활동가가 누구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사무국-성문화운동팀, (현)회원홍보팀 활동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인터넷만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서든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 관리 프로그램은 온라인 기반 프로그램이라 아이디/비밀번호

만 까먹지 않으면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고, 상담소가 사용하는 디자인 툴도 집에서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그치만 제가 이 주제로 글을 쓰게 된 데에는 그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상담소에서 그나마 '스마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다고 하면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한다고 상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페이퍼워크가 많고, 컴퓨터로 사용하는 툴은 한글과 엑셀 정도이며, 그마저도 제 기능의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놀랍게도, 비영리 영역 역시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곳이 꽤 많답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제가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처럼, 상담소 역시 스마트워크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 시기를 맞아 스마트해졌다기보다는, 원래 모든 업무를 온라인화하는 방식이 익숙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개인 노트북이 생겼을 때부터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넘나드는 투두리스트 앱을 찾아 헤맸고 구글 드라이브로 모든 문서를 관리했어요. 사무실에 제 자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한 일도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 기능으로 각종 문서/작업물을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업무 환경을 온라인으로 세팅하고 마주한 코로나19의 비대면 물결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전화 소통이 상시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불편했지만, 대안적 요소들을 열심히 찾아가며 고군분투했던 것 같아요. 메일 소통에 공을 들인다거나, 전화를 자주 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반응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후원 관리 프로그램을 메시지 자동화와 접근환경이 좋은 것으로 바꾸는 등 이것저것 새로운 시도를 많


이 했습니다.

전 세계적 감염병의 유행으로, 개인 업무뿐만 아니라 상담소 전체적으로도 온라인화가 필요한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온라인화의 물결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오더라고요. 상담소 스마트워크의 일환으로, 대면 업무와 비대면 업무를 번갈아 가며 하게 되는 유동적인 상황에 적응도 하고 상담소 활동가들의 일정을 기록 가능한 형태로 남길 겸 구글 G-Suite를 조금 더 잘 사용해보자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비영리단체를 위한 IT기업들의 지원 사업이 잘 되어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구글 캘린더로 팀별 일정을 입력하고, 그 일정에 참여하는 활동가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변화는, 이전에는 탁상달력 하나에 예약하려는 공간을 수기로 적어야 해서 외부 일정을 하다 급히 상담소 공간을 수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부탁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간편하게 구글 캘린더로 회의 공간까지 예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디서든 볼 수 있으니 공간 예약이 겹치는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이 일정에 참여한 활동가가 누구인지 직접 물어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어 특정 시기에 상담소가 주력한 활동을 모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올해부터 함께 팀 활동을 하는 동료가 생기고부터는 팀 업무에도 구글 G-Suite를 도입했습니다. 각종 회의 안건지와 공유해야 하는 문서 작성은 구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업무 일정(회의 등 공유가 필요한 내용에 한해서요)이나 휴가 일정을 캘린더로 공유하고, 업무 파일은 공유드라이브로 접근성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전체 사업 일정이나 개인 업무 관리는 노션으로 하

고 있어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워크스테이' 시범사업에도 지원해서 우리가 구축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이 외부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돌아볼 계획입니다.¹

거리두기 단계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환경을 영영 바꿔놓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온라인 토론회나 스마트워크이지 않나 싶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확장이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는 기회가 되면서 상담소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뀐 일상이 상담소에 잘 안착하도록 '스마트 담당'으로서 힘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상담소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해주세요! 

1) 원고 작성 이후, 해당 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어 지리산에 다녀왔습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참여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현수, 이현우,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현하, 이혜경, 이혜경, 이혜란, 이혜연, 이혜인, 이혜정, 이혜지, 이혜진, 이혜진, 이호선, 이호진, 이홍연, 이화진, 이효린, 이희동, 이희설, 이희수, 이희선, 이희화, 임근호, 임정진, 임규정, 임금희, 임기택, 임보라, 임서준, 임선민, 임설아, 임소정, 임소희, 임여정, 임예은, 임오주, 임유영, 임은규, 임은재, 임재택, 임정수, 임정우, 임지숙, 임지영, 임지현, 임천용, 임하나, 임현진, 임효진, 임홍설, 임희수, 임희윤, 장규범, 장다혜, 장미정, 장진주, 장성연, 장성희, 장수경, 장수영, 장수진, 장여경, 장연주, 장영아, 장예리, 장예리, 장예지,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은재, 장은지, 장정윤, 장주영, 장지승, 장진, 장하나, 장혜윤, 장효정, 전누리, 전민주, 전범미, 전병옥, 전서래, 전소연, 전소영, 전수인, 전수지, 전아람, 전연배, 전영민, 전영민, 전영은, 전영진, 전유경, 전유나, 전유미, 전은유, 전은재, 전재혁,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전현정, 전혜영, 전혜진, 전화정, 정경수, 정경애, 정경자, 정광식, 정광, 정광철, 정교화, 정규빈, 정기영, 정기원, 장나라, 정다솔, 정대근, 정대린, 정대연, 정덕기, 정동연, 정두리, 정명화, 정문영, 정미사, 정민성, 정민이, 정보리, 정보배, 정복련, 정상순, 정선영, 정소린, 정수연, 정슬아, 정승규, 정영진, 정연주, 정영미, 정영서, 정영석, 정영애, 정예, 정예슬, 정유림, 정유빈, 정유선, 정유정, 정윤경, 정은영, 정은아, 정인호, 정재영, 정재우, 정재옥, 정재하지은, 정정기, 정종민, 정준애, 정지아, 정지은, 정지은, 정지현, 정지혜, 정지훈, 정진주, 정진화, 정초윤, 정현, 정현교, 정현우, 정혜은, 정혜은, 정혜훈, 정효정, 정희수, 제하나, 조경오,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조동현, 조무호, 조민아, 조민우, 조상은, 조서연, 조선우, 조선주, 조성화, 조소연, 조소연, 조승주, 조연주, 조영선, 조영진, 조원영, 조유빈, 조유진, 조은샘, 조은숙, 조은울, 조은정, 조은희, 조인경, 조인석, 조인옥, 조일래, 조임춘, 조재연, 조재휘, 조주영, 조준희, 조준희, 조지일, 조지혜, 조진희, 조한이, 조한철, 조혜수, 조혜연, 조현선, 조현우, 조혜인, 조혜정, 조훈재, 좌유빈, 존존, 주광용, 주자기공소, 주명희, 주순원, 주사회사통보, 주호준, 지성업, 지승경, 지안, 지오, 지인숙, 지현, 진새록, 진사우, 차선주, 차성안, 차영선, 차현수, 차현우, 채우리, 채유리, 채은혜, 채현숙, 채훈병, 전장아, 천정환, 최강배, 최근호, 최경식, 최근우, 최금래, 최기영, 최다운, 최대연, 최동석, 최동인, 최란, 최문영, 최미경, 최미림, 최미숙, 최미현, 최민서, 최민아, 최민옥, 최민정, 최병훈, 최보름, 최보미, 최보영, 최보연, 최빛그림, 최상구사세, 최서영, 최서윤, 최석우, 최성민, 최성실, 최성호, 최성희, 최세연, 최세진, 최소영, 최수연, 최숙희, 최아림, 최아정, 최연우, 최영애, 최영주, 최옥경, 최옥득, 최원일, 최유정, 최윤수, 최윤준, 최윤정, 최은식, 최은영, 최은정, 최익진, 최재용, 최정은, 최정택, 최지나, 최지연, 최지은, 최지은, 최진안, 최찬양, 최태순, 최태준, 최하나, 최현경, 최현윤, 최현정, 최형옥, 최혜란, 최혜린, 최혜연, 최효선, 최희범, 최희진, 추민주, 추상아, 추신미, 추정희, 추지현, 추현수, 탁수정, 표주성, 표하루, 표혜림, 하다영, 하릉, 하승수, 하승표, 하연수, 하은주, 하종석, 허주선, 허주현, 허지수, 허지은, 하희정, 한기보, 한만철, 한문형, 한미화, 한민지, 한보경, 한보라, 한서영, 한소망, 한수경, 한승진, 한승호, 한승희, 한신복, 한여선, 한영미, 한예림, 한유림, 한윤미, 한은희, 한이계영, 한일아, 한정빈, 한지연, 한진영, 한재운, 한해령, 한희정, 함경진, 함아름, 허진, 허광은, 허민숙, 허민지, 허신형, 허성준, 허신애, 허은주, 허이화, 허준석, 허지민, 허지은, 허재영, 허태균, 현수진, 현정순,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순기, 홍은정, 홍일선, 홍주은, 홍지수, 홍지은, 홍진경, 홍찬숙, 홍현진, 황미선, 황보승태, 황서연, 황선유, 황성기, 황성욱, 황성민, 황송원, 황숙희, 황에나, 황유미, 황정진, 황지연, 황진선, 황혜림, 황효진, 황희, aaami, Kristen Yeo, LEE JO HYANG, oopiuu, ssy(이상 1,592명)

번치 않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평생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병덕,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김경현, 김명륜, 김미주, 김민정, 김소연, 김연경, 김유란, 김유엘, 김지은, 김효선, 공지팩토리, 나인선, 남우석, 노길용, 목동 명성교회 청년부, 미씨유림, 박미란, 박성환, 박수진, 박아영, 박인필, 박종훈, 박지희, 박진우, 배경, 배정철, 복인혜, 송미연, 신상호, 안백민, 안현진, 오주현, 원미진, 유정화, 윤지현, 이덕화, 이문희, 이상화, 이우연, 이우미, 이우정, 이혜사랑, 이현상, 임나영, 임미화, 임조류, 임효진, 장정수, 장철우, 전현지, 정다희, 정대린, 정명중, 조인석, 조일래, 존타클럽, 천수빈, 최수진, 최유진, 최진주, 추미애, 하동호, 한진부녀회(이상 68명)

생활인들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열림터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문식, 강민혜, 강소영, 강은재, 강지혜, 고병진, 고지현, 고화정, 고희선, 박선하, 권태형, 권혜준, 금보경, 김광현, 김나래, 김남희, 김다미, 김다솔, 김다운, 김도형, 김도희, 김동균, 김문주, 김미우, 김미진, 김민성, 김민옥, 김신아, 김선환, 김설아, 김소연, 김소현, 김수연, 김수연, 김수진, 김수진, 김신아, 김아리, 김연순, 김원오, 김유리, 김유숙, 김유엘, 김유정, 김윤혜, 김이슬, 김주연, 김지국, 김지민, 김지완, 김지연, 김지은, 김지혜, 김지혜, 김차연, 김태연, 김한결, 김해나, 김현지, 김혜린, 김혜연, 김희진, 김효진, 김희도, 나경미, 나유미, 남영미, 노승연, 노영미, 노유민, 동진한의원, 류수민, 류원희, 류정빈, 류종현, 류한솔, 목소희, 문숙영, 문채훈, 미씨유림, 민슬기, 민조현, 박계나, 박기원, 박나미, 박나나, 박미정, 박상희, 박세중, 박아름, 박우영, 박인필, 박정옥, 박준숙, 박지혜, 박현희, 박혜민,

박혜상, 박혜선, 박혜은, 박효인, 박효정, 배용준, 배정원, 백상준, 법무법인(유한) 지평, 서범원, 서영민, 서해인, 심김교회, 성민주, 손정은, 송민성, 송재희, 송지영, 송지영, 송지현, 송희원, 신경혜, 신보영, 신영미, 신용범, 심연희, 심진설, 심현실, 안분순, 안소연, 안재희, 안효선, 양윤희, 양주애, 양지애, 양혜연, 엄지은, 엄정신, 오경은, 오두환, 오민지, 오선호, 오연서, 오영배, 오정희, 오희중, 원지혜, 유규민, 유선옥, 유소리, 유예리, 유용석, 유정안, 유진영, 유채린, 유형선, 유혜영, 윤영선, 윤채희, 윤화영, 윤희진, 이경선, 이경아, 이규정, 이다운, 이도행, 이도희, 이명선, 이명희, 이미홍, 이산하, 이산하, 이상연, 이성아, 이수정, 이승준, 이승혜, 이승희, 이어진, 이엄지, 이연재, 이옥영, 이은미, 이정숙, 이정화, 이정희, 이종국, 이주란, 이주성, 이주현, 이주혜, 이준용, 이지영, 이지예, 이지혜, 이찬희, 이태복, 이혜인, 이향실, 이향화, 이혜림, 이혜진, 이효은, 이희진, 임나영, 임명순, 임미영, 임소현, 임수현, 임유영, 임윤정, 임은희, 임지연, 임지현, 임치선, 장다혜, 장세희, 장예수, 장주영, 장희진, 전수인, 전소연, 전순유, 전승기, 전해영, 전훈진, 정고은, 정다연, 정민석, 정선희, 정순희, 정영수, 정은경, 정은혜, 정재윤, 정정희, 정정희, 정창수, 정하나, 정현주, 정혜은, 정효영, 조민정, 조보라, 조서영, 조영래, 조윤기, 조은희, 조종선, 조현아, 조혜방, 주혜정, 진보영, 진수희, 최강현, 최민영, 최성희, 최수연, 최영주, 최유리, 최유림, 최윤미, 최정민, 최정민, 최희진, 추연정, 추지영, 표아림, 하상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영규, 한예림, 한희진, 허민숙, 허복옥, 허정연, 허계량, 허지선, 홍나영, 홍상희, 홍윤기, 홍혜수, 황동하, 황상필, 황은순, NG FAITH SHI EN(이상 284명)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시후원자분들, 감사합니다.

(주)문화동네, 강단, 고소영, 구분원, 구하경, 권경하, 권형준, 권훈, 기하연, 김가현, 김가희, 김규진, 김나경, 김나영, 김능연, 김동범, 김미나, 김민주, 김민지, 김상열, 김서연, 김선지, 김소라, 김소영, 김승희, 김아란, 김연조, 김예은, 김예은, 김유진, 김이현, 김유아, 김주은, 김준배, 김지혜, 김진, 김하연, 김현리, 김현정, 김현지, 노경미, 농구선수 박지현 팬클럽 '맹팬모', 담양여자중학교(김양희), 레레사 일동(총2명), 마코민박, 매뉴얼, 민재하, 박근희, 박선은, 박선홍, 박소영, 박수민, 박양준, 박자영, 박주영, 박진영, 박진우, 박혜원, 박혜성, 백가경, 백소원, 백승현, 서은희, 석연지, 성재영, 소세희, 송정현, 신무형, 신민경, 신승희, 신에지, 신윤주, 신혜연, 심원고등학교VANK, 아리에드, 안지은, 에브리마인드, 여승은, 연남살롱, 영화야놀자, 예그리나, 오선화, 오예준, 오지수, 온기경, 우윤지, 위밋업스포츠, 유기일, 유희화사미디어일다, 윤나영, 윤정린, 윤지연, 이가은, 이정환, 이다솔, 이래은, 이수정, 이수호, 이슬기, 이예나, 이유나, 이은지, 이정민, 이지성, 이진선, 이현성, 이형찬, 임규원, 장광미, 장미란, 장보옥, 장성희, 장예림, 장영애, 전미소, 전세진, 전수민, 전애진, 전지은, 전해연, 정서린, 정승민, 정승아, 정연재, 정유현, 정지연, 정지희, 정진아, 조정아, 조윤지, 조일래, 조지성, 주노아, 천가영, 최성은, 최유니, 최지연, 최진주, 최혜연, 키워세, 허현주, 한민지, 한민화, 한울애플러스주식회사, 함은서, 홍숙영, 홍유진, 황인화, 황정미, Diana Moskovitz, INNW 인권팀, LEE JIA LIN, NG FAITH SHI EN, UK Online Giving Foundation, 샴, 中村礼子(이상 156명)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체회원 일괄등록 안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연구소 울림, 부설 쉼터 열림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전체 회원을 일괄등록합니다. 등록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님께서는 상담소 또는 열림터로 연락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회비 재출금 안내】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월출금일 5일(은행 영업일 기준) 이후 1회 재출금을 시행합니다. 재출금 시에는 해당 월의 미납된 금액만이 출금되며, 익월에 미납된 금액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후원회비 납부관련 문의 혹은 회원정보(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변경 방법】
 상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상담소 후원회원 회원정보 변경하기>를 참고하시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 문의: 낮/밤, 산 / 02-338-2890 / ksvrc@sisters.or.kr
 부설 쉼터 열림터 회원 문의: 낮/밤 / 02-338-3562 / yeolim@sisters.or.kr

흔흔한 기부

- { 상담소 }**
- 이미경님의 시원새콤한 꿀 세 박스, 정성 가득 무시송편 한 박스
 - 하나님의 활동가 활력을 위한 비타민음료 두 박스
 - 태승님의 소중한 용돈을 아껴 산 커피음료 여섯 캔
 - 주현님의 출국을 아쉬워하며 건네주신 스콘과 쿠키 한가득
 - 익명의 내담자님의 달달해서 마음까지 녹는 카라멜 한 상자
 - 이경환님의 아침에 먹기 좋은 견과 4종 한 박스
 - 김창룡님의 달콤하고 향긋한 꿀
 - 박윤숙님의 든든한 빵 한가득
 - 조인섭님의 활동가의 활력을 되찾아준 와인 스물두 병
 - 선민님의 건강한 간식 레드향 수제타르트 두 박스, 싱싱한 수박, 키위, 오렌지, 케이크
 - 여름님의 쫄깃쫄깃 흑인자떡, 찹쌀떡 한 박스
 - 여파님의 새콤달콤한 딸기 간식
 - 푸른나비님의 수요시위 응원!! 따뜻한 각종 차
 - 익명의 내담자님의 입에서 사르르 녹는 보들보들 카스테라 한 상자
 - 정소영님의 여행가고 싶어지는 오메기떡 한 박스
 - 산님의 구수한 보리차, 우영차 한 박스
 - 윤지원님의 전통이 느껴지는 성심당 빵 한가득
 - 매화님의 버터향이 입맛을 돋구는 크로와상 열 개
 - 노이님의 시원달달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예쁜 꽃무늬 마스크 한가득
 - 닷별님의 경주 여행 기념 쫄득한 찰보리빵 한 박스
 - 조규리님의 회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성교육 보드게임 3종
 - 도경님의 달고 고소한 경주 찰보리빵 한 박스, 호두과자 열여덟 개
 - 란님의 비타민 듬뿍 상큼한 카라향 두 박스
 - 박선숙님의 활동가 사랑이 느껴지는 음료수 스무 병
 - 김정희님의 카페인 충전을 위한 향긋한 드립백 커피 네 상자
 - <양성평등진흥원>의 아삭아삭 식감 좋은 달콤한 사과 한 박스
 - <모두의 부엌>의 마음 따뜻해지는 비건 초코파운드케이크, 짜이, 바나나파운드케이크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활동가 건강을 위한 유산균 세 박스
 - <카피플러스>의 맥주와 먹으면 딱인 소고기 육포 한 박스
 - <서울시 성평등활동가 지원센터>의 정성스레 보자기에 담긴 한라봉
 - <제도와 사람>의 취향따라 골라먹는 과일주스 한 박스

- { 열림터 }**
- <심심잡화점 책방> 최호선님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시집과 그림책 등 도서 열 권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의 공간을 든든하게 채운 30Kg 쌀 한 포대